

§ 교회 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21년 표어 §

"다시 세워지는 서울교회"(스 10:1, 12, 행 3:19-21)

十 행동 지침十

- 1. 약속의 말씀 위에 다시 세워지는 서울교회!
- 2. 믿음의 계대 이루어 미래를 열어가는 서울교회!
- 3.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서울교회!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 www.seoulchurch.or.kr



진리를 땅에 묻어둘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그를 따르던 이들에게 알려지기 전에 주님을 못 박은 원수들에게 먼저 알려졌다라는 사실은 흥미있는 사건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 부활절 새벽 해 뜨기 전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무덤 문을 막고 있던 돌은 옮겨졌고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은 천사들이 내려와 돌을 굴리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하기 전 주님의 부활을 먼저 알았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여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고 전하라는 천사를 보았다」 고 했습니다. 수직하던 군인들은 같은 내용을 장로들과 대제사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주님을 못 박도록 한 이들은 예수는 세상을 뒤엎으려는 자요 모든 미풍양속인 전통을 파괴하는 자이므로 위험분자로 간주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실 것을 더욱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무덤에 가두고 평안히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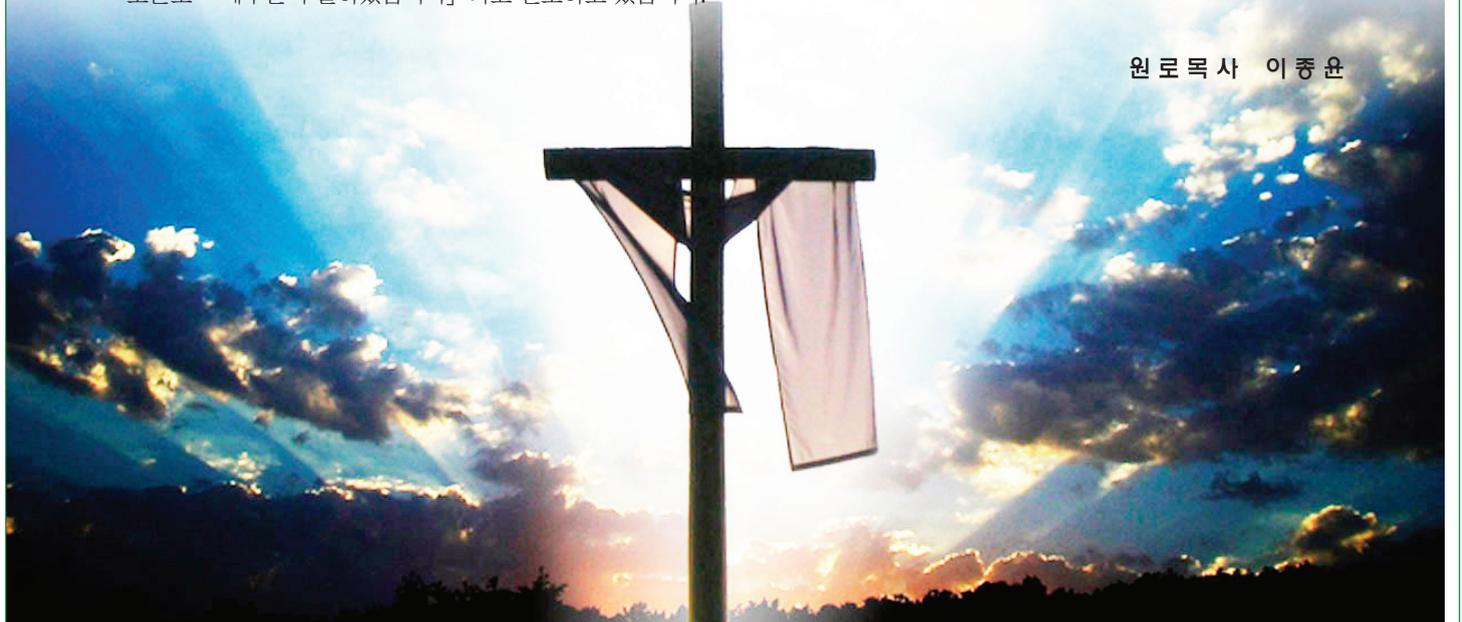
군인들이 새벽에 찾아와 문을 노크하면서 무덤이 비었고 예수는 살아났다고 보고를 했을 때 그들은 놀라고 또 놀랐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인물은 군인들입니다. 그들은 이미 천사들로 인해 놀랐습니다(마 28:4) 그러나 그들은 천사가 떠난 후 빈 무덤을 보고 더욱 두려워했습니다. 업무 태만으로 사형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살아 있을 때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 한 말을 기억하고 군인들에게 수직하도록 당부한 바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이 헛소문을 퍼트릴 것이 두려웠습니다. 군인들은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이제는 죽는 길 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니 두려움이 더욱 엄습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제사장들은 숙의 후 군인들에게 벌을 내리는 대신 돈을 많이 주고, “우리가 잠든 사이에 그의 제자들이 도적질해 갔다”하러 했습니다. 그 일로 너희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권할 것까지도 약속해 주었습니다. 비록 교육 수준이 낮은 당시의 군인들이라 해도 잠든 사이 도적질해 간 이들이 제자인지 어찌 알았을까요? 그 중 한 사람이 깨어 있어 보았다면 다른 군인들을 왜 깨우지 않았을까요? 제자들이 시체를 안고 도망가려면 군인들 보다 훨씬 어려운 처지에 있지 않았을까요? 더욱이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의 어부나 시골 사람들입니다. 로마군인들이 지키는 무덤에 접근했다는 얘기부터가 무모한 조작입니다. 제자들은 이미 수배대상이 되었을 터인데 도적질해 갔다는 거짓말은 입증되지 않은 거짓말입니다. 벌을 받아야 할 이들이 상금을 받은 것만으로도 그것이 거짓이었음이 입증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는 신약에 11번이나 나타나셨고 이 복음을 믿고 전하는 사람들은 환영보다 박해를 받았습니다. 거짓 아닌 진리를 전했으나 상급 대신 형벌을 받았습니다. 체포되고 투옥되고 순교하였습니다.

진리를 땅에 묻어둘 수는 없습니다. 돈을 주고 시체를 도적질해 갔다고 거짓을 유포했으나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예수는 사망권세를 깨치고 승리의 부활을 하셨다고, 목숨보다 이 진리 전파를 사명으로 믿고 영원한 상급을 소망하는 천국시민들이 오늘도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원로목사 이종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주일 I·II·III부 예배 시
부활절 감사헌금·성(聖)금요일 금식헌금 드려
찬양예배 시 가브리엘 찬양대 솔리스트 부활절 절기찬양



하나님은 죄인 되어 도무지 희망이 없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로 지킨다.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기 위해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성찬식을 거행하여야 하나 현재의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으로 올해도 성찬식은 거행하지 않고 다만 부활절 감사헌금과 성(聖) 금요일 금식헌금을 드린다.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는 부활절 절기찬양으로 가브리엘 찬양대(대장: 오승민 집사) 지휘

백경화 권사, 오르간 이수정 성도, 피아노 정혜은 성도, 팀파니 윤주일 집사, 소프라노 솔리스트 박민정 성도, 김정인 성도, 테너 솔리스트 김성현 성도, 베이스 솔리스트 황성영 성도들이 '예수 사셨네', '나 주 위해 살리라', '승전가-아멘', '사망을 이긴 주' 4곡으로 부활의 주님께 영광 돌린다.

모든 성도들이 성찬식에 참여하고 부활의 주님을 마음껏 찬양드릴 시간이 속히 오도록 기도에 힘쓰자.

온라인 헌금을 위한 봉헌 계좌

서울교회 통장계좌는 다음과 같다.

* 신한은행 대치동지점 100-034-868968
(대한예장 서울교회)

광 고

신속한 교회 행정을 위하여 이사 등 주소변경 시는 즉시 사무국이나 교구목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담임목사 청빙을 위한 기도 제목

1. 모든 송사 건이 속히 정리되게 하시고, 정결한 가운데 담임목사를 청빙할 수 있도록 성결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2. 사랑하는 서울교회의 아픈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어 <천국시민 양성> <만민에게 전도> <빈약한 자 구제>의 목표를 이루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이념으로 하나님의 목회를 감당할 담임목사를 하나님이 찾아 보내 주옵소서
3. 모든 청빙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나타나게 하사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순적하게 진행되어 거룩하고 화평한 서울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4. 청빙위원들에게 성령충만과 분별력과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5. 청빙 받는 목사님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평안의 마음을 주시고, 섬기던 사역지도 아무런 어려움 없이 기도와 격려로 후원할 수 있게 하옵소서

Resurrection Message

Rethinking the Gospel on Easter



Euichang Kim
(영어예배부 지도)

Happy Easter!

Christ has risen. He has risen indeed. On Easter, we are celebrating the resurrection of our Lord. The resurrection is significant because

it is not only the content of the gospel (i.e., "what is the gospel?"), but it also impacts our faith (i.e., "how should we live?"). Paul explains the gospel in 1 Cor 15:1-4 where he describes its characteristics with three relative clauses. First, it is the gospel "which you received" (v.1). The good news has been given to us before we asked for, knew or recognized. Second, it is the gospel "on which you have taken your stand" (v.1). This gospel forms the foundation of our faith, providing the source and ground of our living. And third, it is the gospel "by which you are saved" (v.2). It is not an irrelevant news, it is the good news that saved us. It shows us the only way from death to life, the only remedy from wretchedness to holiness.

Paul continuously explains the content of this gospel in a rather simple way, "that Christ died for our sins according to the Scriptures, that he was buried, that he was raised on the third day according to the Scriptures" (vv.3-4). The gospel is not a complicated theory, it is that Christ died to

pay the debt of our sins. His vicarious death made us alive, and he did not stay in the tomb, but rose again from the dead on the third day. The phrase of "according to the Scriptures" shows that these things are the fulfillment of the promise of God.

Then how does this gospel exhort us to live? Paul commands the readers "to hold firmly to the word...otherwise, you have believed in vain" (v.2). It can come to us as a surprise that we can believe "in vain." If we do not hold firmly to the gospel, if we do not hold on to Christ as our Lord and Savior, our belief might be in vain. Furthermore, Paul commands his readers to an active commandment. Paul concludes his discussion with the following exhortation, "Therefore, my dear brothers, stand firm. Let nothing move you. Always give yourselves fully to the work of the Lord, because you know that your labor in the Lord is not in vain" (v.58). The gospel drives us to give ourselves fully to the work of the Lord.

Even in the midst of numerous troubles and challenges, this good news that Easter reminds us is still valid because it gives us hope that our labor in the Lord is not in vain. That God who raised Jesus from the dead will accomplish his plan of salvation. May we continue to hold firmly to this word, always giving ourselves fully to the work of the Lord.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말씀



첫째 날 : 성전을 두 번째 청결하게 하심
(막 11:15-25) / 서명철 목사

고난주간 첫째 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두 번째로 청결케 하셨습니다. 이 사건 바로 직 전에는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있었는데 이 두 사건은 모두 심판 주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두 사건은 동일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예루살렘 멸망이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으로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예배는 실종되고, 형식적인 종교의식만 남은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종교의 본질인 생명과 선과 의는 상실하고, 전통과 종교의 식만 남은 것이 주님 당시 유대교의 실상이었습니다. 성전 정화사건은 마땅히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할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변질된 것을 보시고 성전의 파산을 선언하신 상징적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것은 두 번입니다. 첫 번째는, 공생애 초기인 요한복음 2장 13절 이하에 나오며, 두 번째는 공생애 마지막 기간인 고난주간 월요일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성전 정화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전 안에서 가족을 매매하고 돈을 환전하는 자들로 들끓었던 것을 볼 때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적 처소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지 어떤 경우에도 더럽혀져서는 안 되며 거룩하게 유지되고 보존되어야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일찍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사 56:7)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며,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뜻입니다. 이사야서의 이 말씀은 장차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허용될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신 성전을, '도둑의 소굴', '강도의 굴혈'로 만든 것이 어찌 예레미야 시대나 예수님 당시뿐이었습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들 역시 기독교 정신이 사라지고, 기독교 전통만 남았습니다. 한국교회가 행여 강도의 소굴이라는 비난의 도마에 올려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과 교회를 돌아보는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

리들도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 날 : 권위
(막 11:20-33) / 서명철 목사

고난주간 첫 날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며 두렵고 무서운 경교의 말씀을 하신 예수님은 이어 "하나님을 믿으라"(22절)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기도의 능력을 믿으라는 말씀이며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린 것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기도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면 응답받지 못할 일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셨습니다. 무화과나무의 저주와 그 결과로서 무화과나무가 말라죽은 사건에 이어서 이처럼 기도의 능력에 대해 가르치신 것은 당시 제자들에게 가장 긴급하게 필요한 것이 기도에 대한 바른 이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초대교회를 이끌고 나가야 할 지도자로 남게 된 제자들에게 가장 긴급하게 필요했던 것은 기도였습니다. 이러한 기도에 대한 교훈은 마가복음서가 기록될 당시의 고난받는 성도들은 물론 모든 시대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꼭 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올바른 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으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으며, 응답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이웃과 더불어 화목해야 합니다(마 5:23, 24). 사도 바울 역시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골 3:13, 14)고 하였습니다.

둘째 날은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중에 가장 많은 일을 하신 날로서 예수님은 대적하는 사람들과 '권위'에 대해 논쟁하시기도 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무슨 권위로 산헤드린 공회가 허용한 성전 내에서의 제물 매매와 환전을 금하느냐고 추궁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 자신으로서의 신적 권위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으며, 인간의 모든 권위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온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작은 권위라도 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담대히 지고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셋째 날 :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고전 5:7-8) / 장석남 목사

성경은 예수님의 수요일 행적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다만 매일 예루살렘 성전을 가셨던 예수님께서 수요일에도 예루살렘 밖에 있는 베다니 마을에 머무신 것으로 추측됩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의 전통에 따라 부정하지 않는 유월절 만찬을 하기 위해 유월절 일주일간을 특히 조심했습니다. 이런 전통에 따라 예수님과 제자들도 유월절을 앞두고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유월절 전 일주일간은 특히 누룩, 곰팡이 등을 치우고 집안을 대청소하는 기간으로 삼았습니다. 유대인과 매우 관련이 깊은 누룩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은 그들에게 깊은 충격을 주었습니다(눅 12:1). 바리새인들의 처음은 위대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에게는 종교적인 형식과 철차만 남고 율법의 정신은 사라져버렸습니다.

바리새인의 위선을 누룩에 비유한 예수님의 말씀은 바리새파에게 뼈아프고 치명적인 공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을 앞두고 누룩을 제거하듯이, 바리새파의 영향력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룩의 특징은 부패성, 큰 파급효과, 구별불가성입니다. 주님은 바리새파와 누룩을 동급으로 보시며 제자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바리새파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경고하십니다. 묵은 누룩은 단절하지 못한 과거의 악한 습관입니다. 그러므로 유월절 어린양,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어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 새 덩어리가 되게 하셨으니 다시는 부패하지 않도록 변질된 누룩, 상한 누룩을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성취된 무교병에 참여한 자들은 더 이상 누룩 있는 떡을 먹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고전 5:8).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은 묵은 누룩으로 변질되지 않은 새 덩어리, 새 떡을 의미합니다. 순전함은 동기의 순수함을, 진실함은 행동의 순수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었고, 영화로운 하늘의 은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옛것은 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는 누룩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더럽혀진 것은 없습니까?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며 마음과 관계와 주변을 돌아보며 흑사라도 우리 안에 남아 있을지도 모를 영적 누룩을 깨끗이 제거해야 하겠습니다.

넷째 날 : 성목요일에 행하신 주님의 교훈

(마 26:36-46) / 장석남 목사

주님은 유월절에 만찬 할 장소를 확인하러 두 제자를 따로 보내시며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라고 분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곳에서 서로를 섬기는 교회의 본을 세우시고, 성만찬의 규례를 제정하시고, 새 계명을 가르치셨습니다.

I. 주님의 세족식-서로에게 종 노릇 하라

주님께서서는 식사 중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이때 시몬 베드로는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러면 손과 머리카락도 씻어 달라고 요청하고 예수님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목욕한 자는 예수님으로 인해 죄 사함을 받은 자, 성령 세례를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II. 최후의 만찬-주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라

예수님은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심을 분병과 분잔을 함으로 상징적으로 알려주시고, 장차 이 성만찬을 재연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을 기념하라고 하시며 성례전으로 제정하여 주셨습니다.

III. 고별 설교-서로 사랑하라

이어서 주님은 고별 설교를 하셨습니다. 이 설교는 주님의 마지막 유언이자 새 계명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요 13:34-35).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 곧 구원의 길을 알려주셨습니다(요 14:6).

VI. 겻세마네 기도-이 기도를 본 받으라

성만찬을 끝내신 예수님은 기도하신 시간을 건너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지상 사역의 마지막 종결 장소로 겻세마네 기도처를 찾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곳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겻세마네에서 주님은 마지막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던 곳이 기도처였고, 지상에서의 마지막 사역이 기도였음은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줍니다. 주님은 홀로 기도하셨고, 겸손히 기도하셨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셨고, 끈질기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순종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기도의 완성은 하나님 뜻에 대한 순종입니다.

다섯째 날 : 유대인의 왕

(마 27:11-14) / 조원영 목사



예수님은 금요일 새벽에 체포당하시어 곧바로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의 집에서 심문을 받으시고 산헤드린 앞에서 성전 모독죄로 재판을 받으십니다. 이후 이 사건은 빌라도에게 이첩되었다가 헤롯을 거쳐서 다시 빌라도 법정으로 되돌아 왔고,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연도합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12시에는 어둠이 온 땅을 뒤덮었으며 오후 3시 마침내 운명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맞이하기 위해 서둘러 예수님을 묻어야 했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들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마 26:2).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실현되는 것을 막고자 했지만 그들의 의도와는 다르게 유월절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결국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대로 진행됩니다.

빌라도 법정의 재판은 예수님의 무죄함을 확증하고, 예수님의 왕권을 행사하는 자리였습니다. 빌라도는 종교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그에게 넘겨준 것은 시기와 미움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그의 아내가 보낸 메시지를 통하여 예수께서 무죄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할 것을 요구할 때 폭동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사형 연도를 내리면서 자신은 예수님의 피에 대하여 무죄하다고 선언했고, 백성들은 예수의 피를 그들과 자기들의 후손이 책임질 것이라고 함으로 예수님의 무죄하심을 시인합니다. 본문에는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라는 호칭이 두 번 나옵니다. 이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의 성격을 확연하게 보여줍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역설적으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는 빌라도의 질문에 “네가 말하였도다”라고 대답하시며 자신의 왕권을 행사하십니다. 이는 산헤드린 법정에서 모든 고소에 대하여 완전히 침묵하셨던 예수님의 모습과 큰 대조를 이룹니다. 예수님은 멸시와 고난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유대인의 왕으로 왕권을 행사하셨습니다.

당시 기독교 종교지도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린 자들이었습니다. 생명력과 경건의 능력이 없고, 경건의 모양만 남아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종교지도자들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수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우리의 왕’이십니다.

여섯째 날 : 힘대로 굳게 지키라

(마 27:62-66) / 조원영 목사

고난주간 토요일 예수님이 무덤에 계실 때, 유대교 종교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대응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런데 흥분롭게도 두 종교 그룹, 곧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이 일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서로 반목과 질시의 대상이었던 양 집단이 공동의 목적을 위해, 그것도 안식일에 이런 일을 펼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이었고 유월절 절기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능동적으로 빌라도에게 나아간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련하여 그들의 불안감이 증폭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다시 살아나리라’는 예수님의 평소 발언에 대해 대단히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예수님께 직접 들었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뿔뿔이 흩어져 도망갔는데, 오히려 유대교 종교지도자들은 간접적으로 이 이야기를 전해 들었음에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지게 될 것을 우려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완벽하게 봉쇄할 것을 빌라도에게 요구했습니다. 이는 자신들의 세력이 약해지고,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의 수가 더 늘어날 것이 우려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후까지도 한결같은 모함과 음모와 간계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대적되는 위치에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수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고난주간 토요일 무덤에 머물러 계십니다. 그리고 곧이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초자연적인 부활을 보이십니다. 죽어야 살고, 낮아져야 높아진다는 기독교의 역설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인간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인 예수님은 인간이 되셨고, 성육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언대로 수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무덤에 들어가는 것은 비하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리스도는 죽음을 맛보셨으나, 몸이 썩지 않으시고, 사망에 종노릇 하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문제와 신령한 문제에 대해 동서고금의 모든 학자보다 빛을 더 많이 비추셨습니다. 그분은 웅변을 배우지 않으셨지만 전에 들어본 적 없고, 앞으로도 듣지 못할 전무후무한 생명의 말씀을 하였고, 그 어떤 강연자나 시인도 끼칠 수 없는 영향을 온 세상에 끼치셨습니다.

요약 정리 : 허숙 권사(편집부)



부활의 길을 찬양과 함께



최형렬 장로
(찬양위원장)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한다. 죽지 않으면 부활은 없다. 만약 죽지 않고 부활했다면 그 부활은 거짓이다. 그러므로 부활을 말할 때는 참됨, 진실함을 생각한다. 그러기에 거짓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진실하게 산다는 것 그 자체가 고난이며, 진실한 자를 따른다는 것은 더욱 복된 길이다. 이 길을 찬양과 함께 우리 걸어가 보자.

한 주간 고난주간을 지나 부활주일이다. 기도하며 함께 예수님께서 걸으신 자리를 따라가 보자. 부르심을 받은 자리 베들레헴, 피난처 애굽, 위로가 시작된 가버나움, 제자를 부르신 갈릴리 호숫가, 백성들을 품으신 벳새다, 내려서기를 요청하신 여리고, 기도를 들으신 수로보 니게,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만나시고, 다불산에서 십자가를 향해 가시고, 베데스다에서 인간을 사랑하시고, 감람산에서 질서를 세우시고,

환대와 멸시가 교차하는 예루살렘을 지나, 하나님을 소망하는 모든 이들의 자리 성전, 나누고 섬기신 자리 다락방, 십자가를 위해 기도하신 겐세마네와 메시아로 아낌없이 내어주신 골고다 자리! "다 이루었다" 하신 자리, 이제 부활하여 승리하신 빈 무덤을 보여 주시니, 백부장처럼 "당신은 진정 하나님이시며 나의 구원자입니다" 고백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며 찬양과 함께 나아가자.

이 부활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 우리 안에 잡되지 않은 것, 진실하지 않은 것들을 제거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맵 것은 매고, 짐 질 것은 짐 지고, 주 앞으로 나아가자. 한 마리 물새의 날개 짓에 원을 그리며 퍼져 나가는 동심원처럼 한마음 되어, 한겨울 눈 내린 자작나무의 숲속에서 자작나무의 껍질이 터지는 감격으로 부활의 기쁨을 나누자.

코로나19 속에 가브리엘찬양대에서 준비한 부활의 기쁨 찬양을 벅찬 감사로 함께 드리자. 세상 끝 날에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백경화 권사 (지휘) 이수정 성도 (오르가니스트) 정예은 성도 (피아니스트) 윤주일 집사 (팀파니스트) 박민정 성도 (소프라노) 김정인 성도 (소프라노) 김성현 성도 (테너) 황성영 성도 (베이스)

1. 예수 사셨네 (민세나 곡) 박민정 Soprano Solo
2. 나 주 위해 살리라 (김두완 곡) 김성현 Tenor Solo
3. 승전가 - 아멘 (Harry Causey, 백경화 편곡) 4중창
4. 사망을 이긴 주 (서정민 곡) 4중창



오직 주님만 홀로 높임을 받으소서!



오승민 집사
(가브리엘찬양대 대장)

영원전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대로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크신 위업을 찬양합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을 소리 높여 경배합니다. 가브리엘찬양대가 부활절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으로 인하여 독창과 4중창으로 프로그램이 바뀌어서 많이 아쉽습니다만 찬양대의 모든

인 "최고이신 하나님께 최고의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휘자 백경화 권사와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네 명의 솔리스트가 정성을 담아서 준비하였습니다.

찬양을 함께 드리지 못하는 대원들도 기도로 응원하며 영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지난해에도 부활절 감사 찬양을 준비하였다가 취소되는 일을 겪었고 한 해가 지나도록 전 대원들이 함께 찬양을 드리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이 속히 종식되어 거룩하신 주님을 기쁨으로 맘껏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서울교회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하시며 이제 나타내실 것이며 우리 서울교회를 위하여 반드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어 주실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부활절 축시

부활의 숨이여!

신동기 권사 (12교구, 시인)

다 이루었다!

마지막 피 한 방울
하늘이 땅에
떨어지는 소리

당신 몸을 찢어
하늘 문이 열리고
그 나라 심장까지 붉게 뻗은
구원의 밧줄

이제는
내가 사는것 아니요
내 안에 당신이 숨쉬며
당신이 내어준 죽음으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부활의 숨이여..

하늘 가득한
푸르른 옷자락 한폭
우주 공간
십자가에서 부활로
지축은 돌아 가고..

오늘도
배와 그물
버리고 돌아선
산 자들의 피 묻은 영웅
서울교회여

세상 한복판
플리스 라인에 높이 매달린
거룩한 죽음이
감사의 산재물되어
은 땅 위에
향기롭게 타오르고

일곱 번씩 일흔 번
기막힌 용서가
아버지의
소리 없이 떨어지는
굵은 눈물...
희디힌 부활의 물결로
출렁이는
내사랑 서울교회여!

천국시민 양성 - 새가족부를 수료하며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오세훈 · 윤아영 성도

2020년 8월 서명철 목사님 주례로 결혼한 저희 부부는 등록 후 교회 방침에 따라 11월 15일 주일부터 일대일 새가족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직 낯선 교회에서 예배 전에 먼저 와서 교육을 받는다는 것이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서희숙 권사님께서 첫 통화를 통해 교회 방침과 현재 상황을 친절하게 소개해 주셔서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었고, 첫 교육 시간에는 따뜻한 환영과 배려로 담혀있던 마음문이 조금씩 열리며 편해지기 시작하던 중 또 다시 12월부터 코로나 조치가 강화되면서 1월 말까지 교육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한 저희 생업 관계로 교육 일정 맞추기가 힘들 때에도 권사님은 저희들을 먼저 염려해 주시며 함께 기도로 후원하시며 기다려주셨습니다.

1월 31일 주일부터 다시 갖게 된 교육 시간 때에도 말씀으로 일깨워 주셔서 주일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었고 후반부가 될수록 교육 내용들이 가슴에 와 닿기 시작하며 다시 한번 제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었으며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가져야 할 바른 신앙의 자세를 갖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서울교회 성도로 모범이 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긴 시간을 기다려 주시며 수료하게 도와주신 서 권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21 성경암송대회 일정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암송범위 : 요한계시록 1-5장
- 일반부 본선 : 10월 30일(토) 오후 2:00
- 교회학교 본선 : 10월 31일(주)
- * 부별 대상 수상자는 31일 찬양예배 시에 암송할 예정이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청년들 중, 군에서 복무 중이거나 입대 예정인 청년과 대상 청년의 가족을 비전 2020 도고팀에 알려주기 바란다. 군대에 있는 동안 좋은 상관과 동료들을 만나고 저들의 신앙과 안전을 위해 비전2020 도고팀은 뜨겁게 기도하고 있다.

- 비전2020 도고팀장 김명심 권사
- 010-2002-6644



동정

- 떡 제공 : 8교구 손태현 집사·박혜옥 권사 가정
- 부활절 축하 달걀 제공 : 권사회

전교인 성경읽기표

교구(부서): _____ 이름: _____

일 자	요일	1년 1독	확인	1년2독	확인
4월5일	월	삼하 4-9		시 120-138	
4월6일	화	삼하 10-12		시 139-150	
4월7일	수	삼하 13-15		잠 1-6	
4월8일	목	삼하 16-18		잠 7-12	
4월9일	금	삼하 19-21		잠 13-18	
4월10일	토	삼하 22-24		잠 19-24	
4월11일	주일	왕상 1-2		잠 25-31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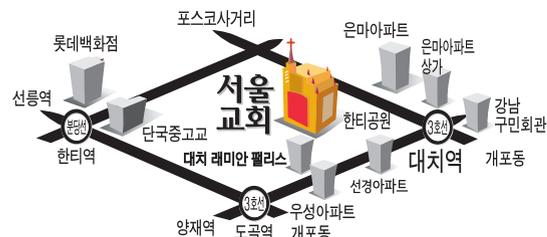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2. 하나님의 목회를 신실하게 감당할 담임목사를 찾아 보내주시어 말씀에 갈급한 성도들에게 풍성한 꼴을 먹일 수 있게 하옵소서.
3. 복음화 된 통일조국 이루어져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나라 되게 하옵소서.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20분	웨스트민스터 홀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웨스트민스터 홀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